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세계는 더붙어 사는 공생 공용 공체이죠

여기 여러분과 같이 한마음이 돼서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佛)이라는 자체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의 근본을 말합니다. 또 교(敎)라는 자체는 바로 지금 현재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불교라는 것은 바로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축생이나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끌어가는 불성 말입니다. 우리는 불성이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모두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죠. '나'라고 하면 전세계 모두가 한 생명이며 한 모습이며, 즉 공생이며 공심이며 공체며 공용이며 공성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세계를 공기주머니에 비유하겠습니까. 모두가 한 공기주머니인 것입니다. 그 공기주머니 속에서 어느 종교 어느 종교를 따지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모습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종교의 이름은 다르지만 근본이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까. 진리는 하나지 틀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자기 모습을 이끌어가는 정신은 빼놓고 자기 모습이 바로 자기인 양 살고 있으니까 이리저리 걸림이 많고 사는 게 복잡하고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이끌어가는 자기 정신계, 즉 불성에서는 자불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합니다. 기독교나 가톨릭교는 자기 자신의 안으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이들과 형상을 만들고 기도를 하면서 찾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나타나 질 않고 정신계로는 도저히 문을 열어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를 끌고 다니는 나의 선장 주인공, 그것이 나무로 비유한다면 나무의 뿌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뿌리는 짙을 두고 짙은 뿌리를 믿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뿌리는 어디로 갔는지 씌어 떼 때를 보고 믿으니 자기 자성의 완성은 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불교라는 것은 어떤 것이 진실한 불교냐. 우리 생활이 그대로 불교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거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한 지구 안에서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불교며 참선이며 여여한

“발자취 짊어지고
온사람 없듯이
함없이 했기에
내가 한것 없어
모두가 쏙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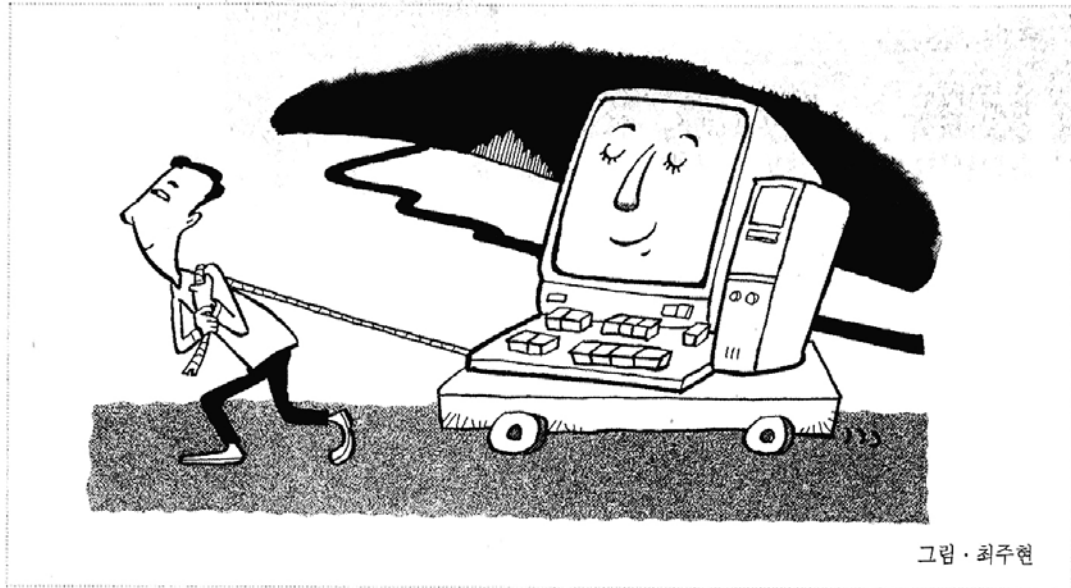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뿌리 알아야 꽃 피고 열매 맺어 공양 “너만이 할수 있어” 주처에 믿고 놓는게 ‘觀’

것입니다. 마음을 낸다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의 자의지만 마음이 없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라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걸 썼다 저걸 썼다 어떤걸 내가 썼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에 '애,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네' 하고 자식 노릇을 해줘야 합니다. 또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 노릇을 해줘야 하겠죠. '여보!' 하고 부르면 남편 노릇을 해줘야하고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자동적으로 모든 생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즉 내가 아버지가 됐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들 노릇을 할 때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노릇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렇게 자동적으로 많이 했어도 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들어올 때를 잊어서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발자취를 짊어지고 오신 분 있으신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자기 자신들이 하고 한 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짊어지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 하나가 잘못됐으면 그 과거를 오히려 붙잡고 간다 이겁니다.

어제 한 일도 오늘 걱정을 해야 하고 그걸 붙들고 짊어질 때죠. 1초 전도 과거고 1초 후도 미래거든요. 그럼 현재만 있는 나? 현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도 공했다 이 얘깁니다.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공했으니까 모두 여러분이 하면서도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듣기를 들습니까 보는 걸 보니

까. 듣는 것을 하나만 듣고 마는 겁니까. 똑같은 걸 들습니까. 이걸 듣고 또 딴 걸 들어야 하고 또 딴 걸 봐야 하고 또 딴 걸 해야 하고 딴 사람 만나야 하고 이런 일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용을 해야 하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공용입니다. 공용!

공용인 까닭은 왜냐? 내 오장육부에도 생명체가 천차만별로 들어있으니까요. 이 몸 속에 생명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 있어서 의식이 자기 마음을 건드린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 모든 의식들이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따라주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간의 한 모습이 한 세계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크다면 요만하게 좁쌀만하게 하나 만들어서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것은 수효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헤아릴 수가 없이 수효가 많은 데

다가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이 또 이름이 주어졌어요. 이 지구 하나의 세계가 벌어져있듯이 틀 속에도 뭐다 장이다 칩수다 칩수다 방광이다 장이다 하는 그 이름들이 수효가 없습니다. 다 따지자면 그 수효를 어떻게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 하나면 그 의식이 다 거기에 포함해서 하나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공용이다 이 소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을 관찰 때 아파서 관찰한 의사가 돼 주고 또 집안 이 안팎서 관찰한 관세음이라 돼 줍니다. 이 소리는 뭐냐 하면 해결사가 돼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자기 용도에 맞게 관찰하면 보디가드가 돼 주죠. 이거는 천차만별로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대로 현실로서 행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냐는 의문이

들죠. 모든 주처는 여러분이 전부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주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형성시켰고 자기가 형성했기 때문에 주처는 자기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주처는 뿌리와 같고 자기 모습은 싹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싹은 뿌리를 믿고 뿌리는 싹을 돕고 이래야 푸르르게 살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불교라는 것이 이름만 '불교 불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불교라는 단어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 분장이 일어나고 사고가 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 까닭이 바로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다 이 소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나 다른 어느 축성이 만약에 부딪치게 됐다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해결을 하겠습니까. 이 불교란 너무도 심오하고 너무도 광대무변한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내가 그 축성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그 축성이 된다면 그것을 멀리 해서 부딪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치가 있죠.

그거와 같이 오늘이 며칠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져서 지금 며칠 며칠 하지만 포괄적으로 본다면 오늘 내일이 없죠. '어디 무엇이 이렇게 있다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면 그건 벌써 100년 200년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디 있다. 이것이 꼭 어디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이렇게 한다. 저거는 저렇게 한다. 이때가 되면 이렇게 죽는다. 이때가 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것도 그건 난설이예요. 왜냐? 예언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예언이라는 것이 없는 까닭이 뭐냐하면 만약에 이 컵이 지구라 한다면 얼른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있다 해도 1초 후면 벌써 이렇게 딴 데로 옮겨져 있어요. 모든 물질이 다 그렇게 변화가 오는 겁니다. 사람도 늙고 물질도 변하죠. 모든 것이 변화무쌍한 겁니다.

그러니 많은 말을 하고 많은 행동을 했어도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함이 없어야 했을 뿐이니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편안하게 사십시오. 아아. 그리고 죽는다 산다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성돼서 이 세상에서 나왔죠. 죽어 가는 것도 이 세상에서 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살아 온 것이 없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실을 지장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현실의 고(苦)는 나를 정화시키는 보살의 손길

인생은 '고'가 아니다. 생사가 있다고 하나 생사를 여의는 불생불멸의 열반이 있으니 고가 아니다. 만고와 헤어지는 슬픔이 있다고 하나 만고와 헤어짐의 근본이 텅 비어 고요하니 고가 아니다.

삶에 있어서의 온갖 고통과 번뇌도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그것을 견디거나 극복해 갈 수밖에 없다. 물론 나의 가족, 벗, 이웃들이 털어 주고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자기 절일 수밖에 없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곧 고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지적하셨다. 하지만 동시에 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직접 성취해 보여 주셨다. 부처님께서 성취하여 보여 주신 삶은 고가 아니라 완전 자유이고, 영원한 즐거움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사실 고가 아니다. 다만 고라고 느끼며 속박되어 살고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인생의 목표는 그 고로부터 벗어나 부처님이 부처이 되어서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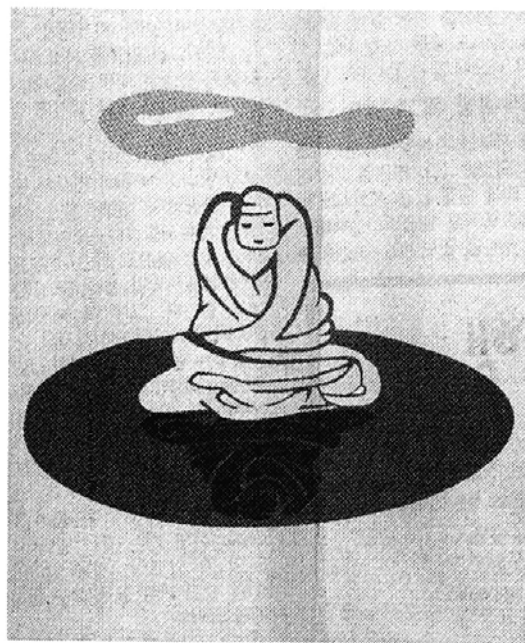
세상 사람들은 고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그 고의 광란 원인을 살피려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한 가지 고에서 벗어나도 해도 또 다른 고가 닥쳐오는 것을 변할 길이 없다. 나라는 존재는 따지고 보면 실 세 없이 오락을 만들어 내는 생산 공장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생산해 낸 것은 내가 수습해 들여야 한

다. 고의 경계들이 다가오는 원인을 모른다면 만방으로 꼬달리게 된다. 그러나 그 원인을 알면 수역집의 업으로부터 단숨에 벗어날 수도 있다. 평생을 고에 시달리느니 벗어나느냐는 한생각의 차이로 판가름난다.

내가 인연 따라 태어난 것부터가 인과의 산물이니 그대로 고이다. 이전에 살던 업이 쌓이고 문쳐 오늘의 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업이라고 괴로워한다면 한없이 괴롭겠지만 그 모든 것을 수련 과정이라고 생각을 돌린다면 오직 참 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을 돌리는 것은 모처럼 나온 새벽에 물을 주는 격이고, 그냥 업이라 해서 괴로워하는 물을 주지 않고 말라 죽게 만드는 격이다. 그래서 모르면 저속고이고 알면 극락인 것이다.

과거에 입력된 것이 현실의 과보로 다시 나오기에 살다 보니까 고초가 따르고 서로 쫓기고 쫓는 고통이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발이 되기도 한다. 그것이 산 교편이요 산 전리이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지금 내게 닥치는 고의 경계들은 사실 인연이 내가 벌레로 살다가, 새로 살다가, 짐승으로 살다가, 혹은 인간으로 살면서 지어



던 모든 행위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고의 경계가 다가왔다 해서 이를 피하려거나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나를 일깨워 수행하게 하고 다지는 것이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라. 그런 마음이라면 고는 이미 고가 아니니, 절로 놓고 돌아가는 데 고집별도는 어디 있겠는가.

현실의 고통이란 알고 보면 순간 순간 자기를 밖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요 만기름이다. 본래로 밝아 있음을 모르는 나를 일깨워 성숙시키고 종내는 해탈로 이끌어가는 수련의 과정인 셈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혹은 아무리 즐겁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사생세의 가르침이 그것이다.

우리의 삶이 고라고 하지만 동시에 제도의 과정이니 고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삶은 고라 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 실은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흙탕 물에 빠져 본 사람은 자기가 해 보았으니까 다시 빠져도 안고 남도 견줄 수 있지만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그대를 알 수도 없거니와 남을 건져 주지도 못한다. 고 속에서 풀려 본 사람이라야 글러 보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감응할 수 있는 것이다.

고라는 것도 나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 닥치는 것이니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첫째는 인간으로 형성시킨 게 고마운 것이요, 둘째는 그렇게 분별해서 모든 것을 알게 만

들어 주니 고마운 것이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딪힘도 오는 것이지 자기가 나지 않는다면 무슨 부딪힘이 있었으며 무슨 상대가 있었는가. 그러기에 고다. 업보다 하기 이전에 참 나에다 일체 경계를 말 거 놓고 관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람 되기 어렵고, 정병 만나기 어렵고, 부처 되기 더더욱 어렵다고 한다.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할 일이다. 모든 것을 내 주인공이 나를 성숙되게 동굴에 이끌어 주는 과정이로구나' 하고 믿고 놓아라. 그때는 고에서 그냥 타파해 버렸기에 집도, 밀도, 도도 없다. 고라는 것을 잘 요리해서 맛볼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맛이 되고 감사할 일이다.

현실의 자기 모습을 보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래의 자기 꼴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자기를 돌아보라 하는 것이니 현실의 고나 인과 등은 그대로 수련 과정인 셈이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지만 오히려 나쁜 풍기와 먼지 그리고 불결한 것들을 다 청소시켜 주니, 현실의 고는 오히려 자기를 정화시켜 주는 부처요 보살이다.

협찬: 주인공